광주·전남 계란 한판 7000원대…다시 '금란' 됐다

7개월만에 특란 30구 7295원…한달 전 보다 14.3% 급등

AI 살처분·사료비 급등 영향…전국 산란닭 사육수 3% 감소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산란닭 사육 마릿수가 전남은 석 달 전보다 24만마리(4.8%) 가량 늘었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3% 감소했다.

광주·전남 달걀 값은 7개월여 만에 다시 7000원대로 올라섰다.

24일 통계청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3월1일 기준) 전남 산란닭 사육 마릿수는 517만마리로, 전분기(493만마리)보다 4.8%(24만마리)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전남 산란닭 사육 마릿수는 관련 통계를 낸 1983년 이후 가장 많았다.

광주는 전분기보다 0.9%(-800마리) 줄어든 9만마리로 집계됐다.

전국 산란닭 마릿수는 7261만마리에서 7043만마리로, 3.0%(-218만마리) 줄었다.

산란닭 사육 마릿수는 경기가 27.4%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경북(20.3%), 충남(10.9%), 경남(9.6%), 충북(8.7%), 전남(7.3%)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측은 전국 산란닭 감소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말 사이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로 산란계 124만마리가 살처분됐기 때문"이라며 "달걀 수급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하자 농가들이 늙은 닭을 도태시킨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3개월 미만 산란닭 사육 마릿수는 1081만마리로 전분기보다 0.2% 늘었으나, 실제로 달걀을 낳는 6개월 이상 산란닭은 5015만마리로 전분기보다 4.2% 줄었다.

단 지난해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한 기저효과에 따라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전국 산란닭 마릿수는 13.4%(832만마리) 늘었다.

산란닭 사육 마릿수가 줄고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사료비도 오르면서 달걀 값은 7개월여 만에 다시 7000원대로 올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특란 30구 한 판 평균 소비자 판매 가격은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7295원으로, 한 달 전 가격(6380원)보다 14.3%(915원) 올랐다.

전국 평균 소비자 판매 가격은 7010원으로, 한 달 전(6363원)보다 10.2%(647원) 상승했다.

이날 기준 광주·전남과 부산, 세종, 경남 5곳 가격이 7295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6732원) 이었다.

광주·전남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로 다시 올라선 건 이달 중순(15일)부터다.

조류독감 영향으로 고공행진하던 광주·전남 특란 30구 가격은 지난해 9월 말께 6000원대로 떨어지더니 올해 2월 중순 5930원으로 소폭 내렸다.

하지만 5000원대로 접어든 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6000원대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광주·전남 달걀(특란) 한 판 평균 가격은 지난해 8월 7730원까지 치솟은 뒤 정부가 전방위적 대책을 펼치며 안정세를 찾는 듯했다.

당시 외국산 달걀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긴급할당관세를 지원하는 한편 농가에 재입식된 산란닭들도 점차 달걀을 낳기 시작했다.

이후 달란 가격은 대체로 5000원대 후반~6000원대 중반에서 움직였으나 최근 오름폭이 커졌다.

달걀 값 상승은 올해 들어 산란닭 사육 마릿수 감소와 사료비 급등, 대형마트 할인행사 중단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료의 원료가 되는 국제 곡물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빠르게 뛰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1분기 5.8%(추정치) 올랐고, 2분기에는 13.6%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을 배달하는 밑반찬 나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사단법인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회원 30여 명은 영암 신북농협 지역문화복지센터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농촌 고령농가 220여 가구에 전달했다. 〈전남농협 제공〉

aT, 푸드플랜 아카데미 개강…6월3일까지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1일 '2022년 푸드플랜 아카데미'를 개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강의는 지역 푸드플랜 실행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실무능력 제고를 통해 푸드플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부터 푸드플랜 수립 우수 지자체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푸드플랜 실행에 필요한 농림사업을 묶어 지원하고 있다.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강의는 오는 6월3일까지 진행된다. 지역별 푸드플랜 주체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방향, 현장 실태분석, 공공급식 연계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 계획과 실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백태근 농식품유통교육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며 "푸드플랜 아카데미 과정이 지자체 간 네트워크 확장은 물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실행전략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등 지역별 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북광주농협 여성대학 수료생 헌옷 나눔

북광주농협은 여성대학 수료생들이 지난 22일 헌옷 나눔행사〈사진〉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북광주농협 여성대학 3~4기 수료생이 참여했다.

기부한 헌옷은 비영리법인 '옷캔'(OTCAN)을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한 수료생들은 "집에서 잘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해 기분이 좋다"며 "이 옷들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상봉 조합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탄소중립을 생활 실천 문화로 확산시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 저수율 평년 웃돌아…농어촌공사, 시설별 용수확보대책 마련

풍년농사 기원 통수식 개최도

올 들어 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저수율은 평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6.0%로 예년(78.9%)에 비해 109% 높은 수준이다.

공사는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별 맞춤형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급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전남 저수율은 76.9%로, 평년(72.5%) 수준을 웃돌았다.

올 1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지역이 124.8㎜로, 평년(226.7㎜)의 55.1%에 불과했다.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0.8%로 나타났다.

공사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지난 22일 안전영농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을 국내 최대 평야지인 전북 동진지사에서 개최했다.

통수식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풍년의 기원을 담아 농업용수를 처음 흘려보내는 행사이다. 이날 통수식은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낙양취입보와 금평저수지 급수를 실시했다.

통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내기 급수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용수량 계측과 수리시설 원격조작 등을 시행한다. 공사는 농업용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절약해 ESG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호 사장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에 어려움을 겪는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농가에 선제적 급수를 지원해 물 걱정을 덜었던 것처럼, 벼농사 역시 물 걱정 없이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정적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